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아깝다! 이현곤 9회말 동점 스리런

KIA, 두산에 연장 11회 5대6 패배

양현종 15승 실패 …롯데와 4게임차

KIA 타이거즈가 8일 군산월명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시즌 15차전에서 11회 연장 승부끝에 5-6으로 아쉬운 패배를 기록했다.

KIA는 9회말 터진 이현곤의 동점 스리런 홈런으로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갔지만 마지막 뒷심대결에서 밀리며 재역전패를 당했다.

1회부터 두산의 득점포가 가동됐다.두산의 테이블 세터를 삼진과 땅볼로 돌려세운 선발 양현종이 3번 김현수를 볼넷으로 내보낸 뒤 최준석과의 승부에서 좌측 담장 넘어가는 투런포를 맞으면서 2실점을 했다.

양현종은 3회에도 최준석에게 적시타를 헌납했다. 2사 2루에서 만난 최준석의 타구가 투수 옆을 스치면서 1타점 적시타가 됐다.

4회말 나지완의 반격포가 터졌다. 선두타자로 나온 나지완이 왈론드의 슬라이더를 받아 비거리 125m 짜리 중월 솔로포를 만들었다. 지난 7월9일 한화와의 홈경기 이후 한 달만에 나온 나지완의 시즌 10호 홈런.

양현종은 최준석과의 세 번째 대결에서 다시 한 번 판정패를 당했다. 6회 첫 타자로 나온 최준석이 2루타로 출루한 뒤 최승환의 적시타 때 홈을 밟으면서 점수는 1-4까지 벌어졌다.

패색이 짙어가던 9회말 뒤늦게 KIA의 추격이 시작됐다.

1사에서 김상현이 중앙 담장을 넘기며 2-5를 만들었다. 안치홍이 우전안타로 출루에 성공하자 두산이 마무리 이용찬을 긴급 투입하며 분위기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차일목이 볼넷을 골라내면서 1사 1·2루, 이현곤의 스리런 홈런이 나오면서 경기는 5-5 원점으로 돌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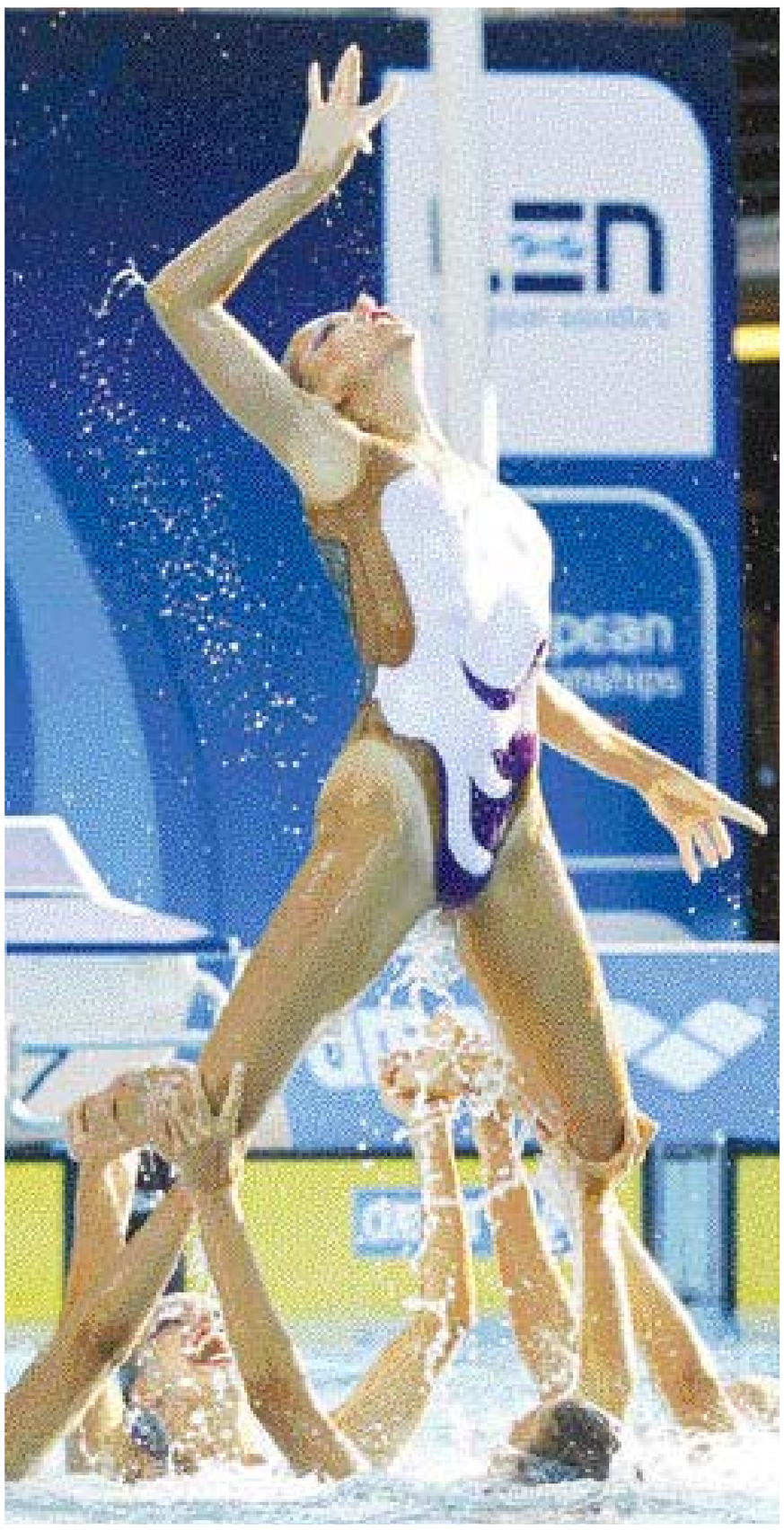
기사회생한 KIA는 연장승부에 돌입했지만 11회 선두타자 최승환에게 중전안타를 허용한 뒤 폭투까지 나오면서 1사 3루에 몰렸다. 안영명에 이어 투수가 손영민으로 교체됐지만 고영민에게 안타를 허용하면서 5-6이 됐다.

KIA는 11회말 1사에서 안치홍이 볼넷을 걸어내면서 마지막 불씨를 살렸다. 이현곤의 몸에 맞는 볼로 2사 1·2루까지 만들었지만 김원섭이 우익수 플라이로 물러났다.

이날 패배로 KIA는 올 시즌 10차례의 연장 승부에서 8패째를 기록했다.

한편 4위 롯데도 이날 '괴물' 류현진을 앞세운 한화에 패배를 기록하면서 롯데와 KIA의 격차는 4게임차로 변동이 없다. 6위 LG도 삼성에 3-8로 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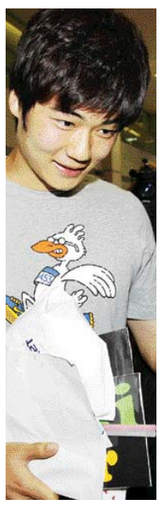
/군산=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물위의 환상연기 8일 (한국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유럽 수영선수권대회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팀 프리 루틴 결승에서 헝가리 선수들이 멋진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조광래 축구와 궁합 OK 첫 단추 잘 끼우겠다"

대표팀 소집 귀국한 기성용



"조광래 감독이 원하는 축구와 내가 추구하는 축구가 비슷하다. 첫 단추를 잘 끼우겠다"

'1기 조광래호'에서 빠른 공수 전환의 핵심역할을 맡게 될 미드필더 기성용(셀틱)이 나이지리아와 평가전(11일 오후 8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조광래 감독의 확실한 눈도장을 받겠다는 의욕을 다졌다.

나이지리아 평가전을 위해 7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한 기성용은 입국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나이지리아와 재대결은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며 "조광래 감독이 대표팀을 이끌게 돼 기대감이 크다. 첫 단추를 잘 끼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조광래 감독이 패스 게임을 강조한 부분에 대해 "조광래 감독과 함께 축구를 해 본 적은 없지만 조 감독이 원하는 축구와 내가 추구하는 게 비슷하다"며 "한국 축구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기성용은 특히 "이번 나이지리아전은 홈에서 치르는 만큼 반드시 이겨야 한다. 국내 팬들에게 승리를 선사하고 싶다"며 "A매치에 참가하는 게 솔직히 피곤하기도 하지만 나라에서 부르는 만큼 의미가 크다. 소속팀 못지않게 대표팀 소집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프리미어리그 명문 아스널과 프리시즌 매치에서 골 맛을 봤던 것에 대해선 "자신감이 생겼다.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팀에 빨리 적응해야 한다"며 "포지션 경쟁이 심해 주전 확보가 쉽지 않지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KIA 3000홈런·3500도루 '대기록'

김상현·신종길 주인공

이종범 1600경기 출장

KIA 신바람의 핵심 신종길과 김상현이 '슈퍼 토요일'을 장식했다.

KIA 타이거즈는 지난 7일 군산월명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시즌 14차전에서 프로야구 사상 첫 팀 3500도루와 삼성에 이어 역대 두 번째 3000홈런 기록을 썼다.

톱타자로 나온 외야수 신종길은 1회 첫 타석에서 볼넷으로 출루한 뒤 2루 베이스를 훔치며 3500도루의 주인공이 됐고, 고향을 찾은 군산상고 출신 김상현은 2-3으로 뒤지던 8회 1사 만루에서 오른쪽 담장을 넘어가는 역전 만루포를 쏘아올리며 3000홈런을 채웠다.

후반기 기동력과 장타력 업그레이드의 주역인 신종길과 김상현의 활약을 앞세운 KIA는 이날 6-3으로 승리를 거두며 지난 5월 19일 롯데전서부터 이어진 군산경기 5연패 사슬을 끊었다. 또 6월 10일 홈경기부터 계속된 두산전 7연패 탈출에도 성공했다.

'백전 노장' 이종범도 6일 두산과의 군산경기에서 우익수 겸 3번타자로 선발 출장하면서 1600 경기 출장 기록을 달성했다. 프로야구 통산 16번째 기록이다.

/군산=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화순고·효천고 봉황기 16강 좌절

화순고와 순천 효천고가 봉황대기 16강 진출에 실패했다.

화순고는 8일 수원종합운동장 야구장에서 열린 마산 용마고와의 1회전에서 3-8로 졌다.

화순고는 1회초 몸에 맞는 볼로 출루한 정진기가 3번 김선현의 안타때 홈을 밟으며 선취점을 얻어냈지만 1회말 1사 1·3루에서 용마고 4번 배준빈에게 싹쓸이 3루타를 맞으며 승기를 내준 끝에 3-8로 역전패 당했다.

순천 효천고는 대구 상원고에 0-5 영봉패를 당했다. 1회 말 1사 2루에서 상원고 3번 배진호에게 적시타를 허용한 효천고는 1회에만 4실점을 하며 흔들리며 0-5로 대패했다.

광주일고와 동성고는 9일 오전 10시 16강 진출을 놓고 동향 대결을 벌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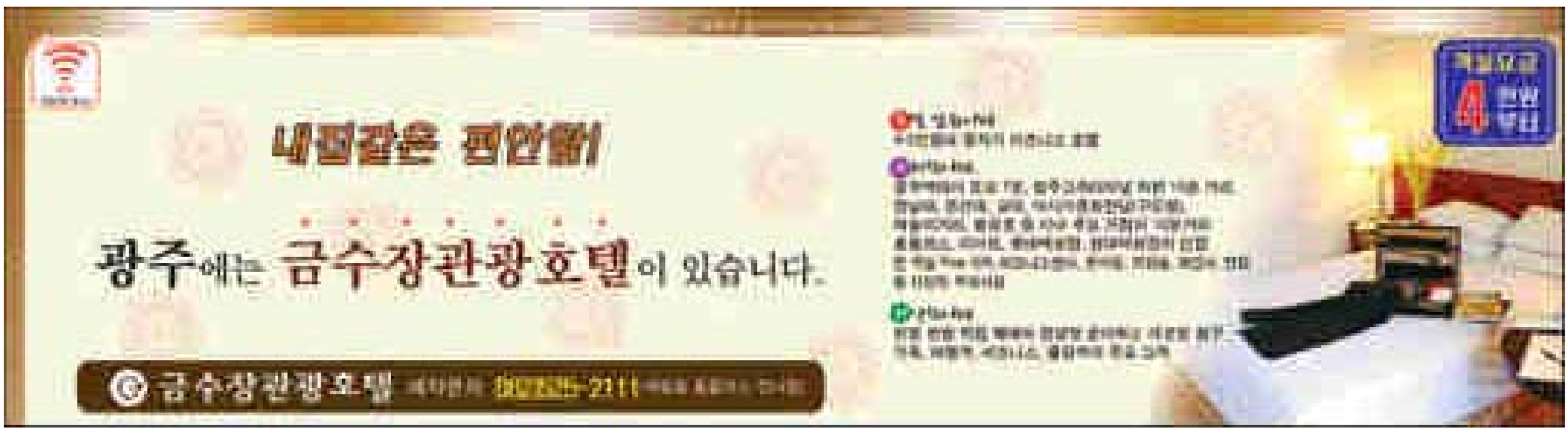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용대-정재성 남복식 금빛스매싱

대만오픈 배드민턴 선수권

여복 이효정-김민정 정상

팔꿈치 부상에서 벗어난 한국 셔틀콕의 기둥 이용대(삼성전기)가 정재성(국군체육부대)과 호흡을 맞춰 2010 대만오픈 그랑프리골드 배드민턴선수권대회 남자복식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용대-정재성은 8일 오후 대만 타이베이 신주앙 스타디움에서 치러진 대회 남자복식 결승에서 대표팀 동료인 조건우(삼성전기)-권이구(김천시청)를 2-0(21-10 21-16)으로 가볍게 돌려세웠다. 1세트부터 11점차 대승을 거둔 이용대-정재성 콤비는 2세트에서 초반 6-6 동점을 이루며 잠시 주춤했지만, 연속 3득점으로 점수를 벌린 뒤 꾸준한 득점으로 5점차 승리를 챙기고 우승의 기쁨을 맛봤다.

역시 한국 선수끼리 맞붙은 여자 복식 결승에서도 여자 복식의 간판 이효정(삼성전기)-김민정(전북은행)이 이경원(삼성전기)-유현영(한국체대)을 2-0(21-14 22-20)으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연합뉴스